2021년도 1학기 신라대학교 재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 분석 -관광경영학부생을 대상으로-

김대래*· 양승훈**· 장희정***

<요약>

이 연구는 매학기 신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분석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도 1학기에는 국제관광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는 원래 108명이었으나 그 가운데 부산에서 출생한 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종교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과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 부산사람들의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울러 부산에 어떤 것이 새로 생기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와 1주일에 술마시는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한달에 용돈을 얼마 쓰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부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부분적이지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 축적이 되면 훗날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1]에서는 매년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한 설문지는 분석하여 그 결과를『부산연구』[2]에 게재하고 있으며, 설문지는 제본되어 부산학센터에 보관되고 있다. 부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왔다.

설문조사는 처음에는 신라대학교에 개설된 부산학 과목인 '부산의 하루'[3]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분석하여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분석결과를『부산연구』에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응답 내용은 익히 알고 있거나 충분히 그렇게 응답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러한

* 신라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명예교수 ** 신라대학교 국제관광학부 교수 *** 신라대학교 국제관광학부 교수

1)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는 2002년에 개설되었다.

2) 부산연구는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1년에 2회 발행하고 있다.

3) 신라대에서는 일찍이 부산학강좌인 '부산의 하루'를 개설하였는데,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개설초기 2분반이었던 부산학강좌는 이후 3분반으로 늘어났는데, 한 분반에 평균 150명이 신청하여 학기 전체로는 약 450명이 수강신청을 하는 인기강좌가 되었다. 그러다 교양강좌 수강인원의 분산차원에서 2분반에 분반별 100명 이내의 개설지침이 적용되면서 수강생은 크게 줄어들었다. '부산의 하루'는 매년 2학기에 개설되고 있다.

설문과 분석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두번의 조사와 연구가 아니라 매년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 학생들의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변화라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설문과 응답결과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조사시점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현재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가 위치하고 있는 시대상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보존하고 전수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신라대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었던 설문조사의 대상을 부산시내 대학생으로 넓혀 가면 학교 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조사 대상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산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 등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신라대학교의 부산학 강좌인 '부산의 하루'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신라대학교 일반학과 학생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나아가 부산지역 다른 대학의 재학생에까지 설문조사 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조사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2021년 1학기 신라대 관광경영학부 재학생들이다. 우리의 설문조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까닭에 몇 분의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수강생들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광경영학과 3, 4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에는 부산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번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왕에 이루어진 분석들도 대부분 부산지역 출생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Ⅱ. 응답자의 속성

1. 응답자 본인의 속성

설문에 응한 학생수는 원래 108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출생자는 56명이었고, 56명 가운데 남자가 27명, 여자가 29명으로 남녀별 구성은 거의 비슷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구성

	빈도	퍼센트
남자	27	48.2
여자	29	51.8
전체	56	100

응답자의 학년을 보면 3학년이 47명으로 83.9%였고, 4학년이 9명으로 16.1%였다. 관광경영학과 고학년 수강생이 설문조사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표 2〉 응답자의 학년별 구성

	빈도	퍼센트
3학년	47	83.9
4학년	9	16.1
전체	56	100

응답자의 전공계열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54명으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관광경영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당연한 결과이다. 타계열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2명이었다.

〈표 3〉 응답자의 전공계열

	빈도	퍼센트
인문사회계	54	96.4
예술체육계	1	1.8
사범계	1	1.8
전체	56	100

응답자의 출생연도는 2000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999년, 1998년 순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1995년 생이었다.

〈표 4〉 응답자의 출생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995	1	1.8	1.8	1.8
	1996	8	14.3	14.5	16.4
	1997	5	8.9	9.1	25.5
	1998	11	19.6	20.0	45.5
	1999	10	17.9	18.2	63.6
	2000	20	35.7	36.4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한편 학생들의 출생연도를 성별로 보면 출생연도가 이른 학생은 주로 남학생들이었다. 이것은 남학생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고학년생들이 수강생 가운데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모두 1998년 이후 출생자였고 특히 2000년 출생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표 5〉 성별 학년별 교차표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995	빈도	1	0	1
	성별 중 %	3.7%	0.0%	1.8%
1996	빈도	8	0	8
	성별 중 %	29.6%	0.0%	14.5%
1997	빈도	5	0	5
	성별 중 %	18.5%	0.0%	9.1%
1998	빈도	9	2	11
	성별 중 %	33.3%	7.1%	20.0%
1999	빈도	2	8	10
	성별 중 %	7.4%	28.6%	18.2%
2000	빈도	2	18	20
	성별 중 %	7.4%	64.3%	36.4%
	빈도	27	28	55
	성별 중 %	100.0%	100.0%	100.0%

응답자의 주거지를 보면 신라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사상구가 1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0.7%의 사하구와 북구였으며 이어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8.9%였다. 대체로 부산지역 각 구군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구의 경우 응답자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서구, 강서구, 연제구 등에는 거주자가 없었다. 부산이외에 거주하는 학생비율도 낮지 않았는데 김해 7.1%, 양산 3.6%, 창원과 울산이 각각 1.8%였다. 부산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비율로 보면 14.3%로 작지 않은 비중이었다.

〈표 6〉 응답자의 거주지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전체
빈도	3	4	1	4	3	5	5	6	56
퍼센트	5.4	7.1	1.8	7.1	5.4	8.9	8.9	10.7	100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기장군	김해	양산	창원	울산	전체
빈도	7	6	3	1	4	2	1	1	56
퍼센트	12.5	10.7	5.4	1.8	7.1	3.6	1.8	1.8	100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6%가 무교라고 응답하여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종교가 없다는 학생을 포함한 조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불교가 19.6%, 개신교와 가톨릭이 각각 5.4%였다. 부산은 불교가 좀 강세를 가

지고 있는 도시임을 읽게 한다.

〈표 7〉 응답자의 종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무교	전체
빈도	11	3	3	39	56
퍼센트	19.6	5.4	5.4	69.6	100

2. 가족과 부모의 속성

응답자를 포함한 응답자 가족의 정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응답자를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몇 명인가 하는 설문에서는 69.6%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을 하여 자녀는 갖는 경우 대체로 2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3명이 17.9%로 1명 7.1%보다 높았다. 이어 4명 3.6%, 6명 1.8%였다.

〈표 8〉 응답자의 형제자매수

	1명	2명	3명	4명	6명	전체
빈도	4	39	10	2	1	56
퍼센트	7.1	69.6	17.9	3.6	1.8	100

주 : 본인 포함

응답자의 부친의 출생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46.4%가 부산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경남이 25%, 울산 3.6%로 전체 응답자의 75%가 부울경 출신이었다. 이어 대구/경북이 12.5%, 호남/제주와 충청/대전 그리고 강원이 각각 3.6%였다. 주목되는 것은 수도권 출생자는 1명도 없다는 것이다. 부산인구의 주요 원천은 부울경 출생자와 대구/경북을 비롯한 농촌지역을 둔 광역시도로부터의 이입 인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아버지의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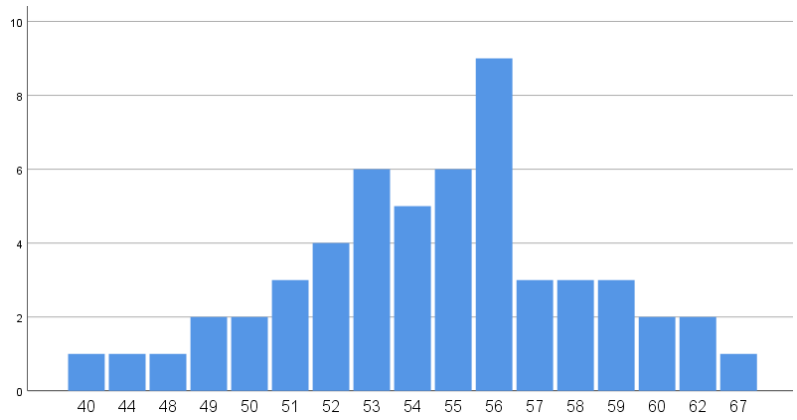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산	26	46.4	47.3	47.3
	경남	14	25.0	25.5	72.7
	울산	2	3.6	3.6	76.4
	경북	5	8.9	9.1	85.5
	대구	2	3.6	3.6	89.1
	호남/제주	2	3.6	3.6	92.7
	충청/대전	2	3.6	3.6	96.4
	강원	2	3.6	3.6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아버지의 나이[1]를 보면 53세에서 56세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가장 젊은 아버지의 나이는 40세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67세였다.

〈표 10〉 아버지의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40	1	1.8	1.9	1.9
	44	1	1.8	1.9	3.7
	48	1	1.8	1.9	5.6
	49	2	3.6	3.7	9.3
	50	2	3.6	3.7	13.0
	51	3	5.4	5.6	18.5
	52	4	7.1	7.4	25.9
	53	6	10.7	11.1	37.0
	54	5	8.9	9.3	46.3
	55	6	10.7	11.1	57.4
	56	9	16.1	16.7	74.1
	57	3	5.4	5.6	79.6
	58	3	5.4	5.6	85.2
	59	3	5.4	5.6	90.7
	60	2	3.6	3.7	94.4
	62	2	3.6	3.7	98.1
	67	1	1.8	1.9	100.0
	소계	54	96.4	100.0	
결측	시스템	2	3.6		
전체		56	100.0		

아버지의 나이분포를 그림으로 보면 50세 중반을 중심으로 왼쪽꼬리가 긴 분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아버지의 나이 분포

1) 나이의 계산에서는 한국식 방법으로 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아버지의 출생연도를 2021에서 빼어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였다.

아버지의 나이를 출생연도로 보면 1965-1968년 사이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1954년 생이었으며, 가장 젊은 아버지의 출생연도는 1981년이었다.

〈표 11〉 아버지의 출생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954	1	1.8	1.9	1.9
	1959	2	3.6	3.7	5.6
	1961	2	3.6	3.7	9.3
	1962	2	3.6	3.7	13.0
	1963	2	3.6	3.7	16.7
	1964	3	5.4	5.6	22.2
	1965	9	16.1	16.7	38.9
	1966	6	10.7	11.1	50.0
	1967	5	8.9	9.3	59.3
	1968	8	14.3	14.8	74.1
	1969	4	7.1	7.4	81.5
	1970	3	5.4	5.6	87.0
	1971	2	3.6	3.7	90.7
	1972	2	3.6	3.7	94.4
	1973	1	1.8	1.9	96.3
	1977	1	1.8	1.9	98.1
	1981	1	1.8	1.9	100.0
	소계	54	96.4	100.0	
결측	시스템	2	3.6		
전체		56	100.0		

어머니의 출생지를 보면 대체로 아버지와 유사하였다. 부산이 48.2%, 경남 26.8%, 울산 1.8%로 부울경이 76.8%를 점하고 있었다. 이어 대구/경북이 7.2%를 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출생지역도 부울경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그 집중도가 더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수도권 출생자는 1명에 불과하여 부산인구의 원형 형성에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어머니의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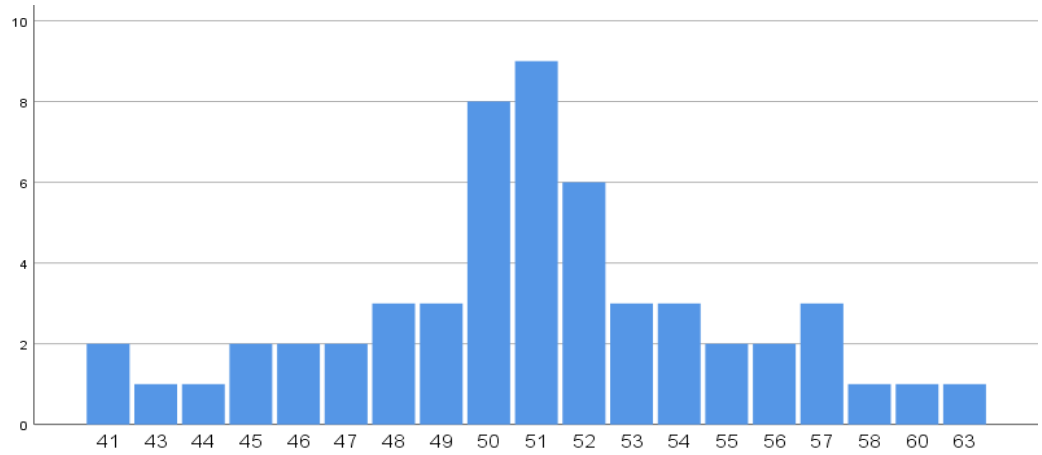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부산	27	48.2	52.9	52.9
	경남	15	26.8	29.4	82.4
	울산	1	1.8	2.0	84.3
	경북	3	5.4	5.9	90.2
	대구	1	1.8	2.0	92.2
	호남/제주	1	1.8	2.0	94.1
	충청/대전	1	1.8	2.0	96.1
	강원	1	1.8	2.0	98.0
	서울/경기/인천	1	1.8	2.0	100.0
	소계	51	91.1	100.0	
결측	시스템	5	8.9		
전체		56	100.0		

어머니의 나이를 보면 41세에서 63세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50-52세였다. 이 3개 연도에 전체 응답자의 41.1%가 집중되어 있다.

〈표 13〉 어머니의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41	2	3.6	3.6	3.6
	43	1	1.8	1.8	5.5
	44	1	1.8	1.8	7.3
	45	2	3.6	3.6	10.9
	46	2	3.6	3.6	14.5
	47	2	3.6	3.6	18.2
	48	3	5.4	5.5	23.6
	49	3	5.4	5.5	29.1
	50	8	14.3	14.5	43.6
	51	9	16.1	16.4	60.0
	52	6	10.7	10.9	70.9
	53	3	5.4	5.5	76.4
	54	3	5.4	5.5	81.8
	55	2	3.6	3.6	85.5
	56	2	3.6	3.6	89.1
	57	3	5.4	5.5	94.5
	58	1	1.8	1.8	96.4
	60	1	1.8	1.8	98.2
	63	1	1.8	1.8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어머니의 나이분포를 그림으로 보면 50대 초반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출생연도는 1958년에서 1980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1969-1971년 사이에 출생한 어머니들이 많았다.

〈표 14〉 어머니의 출생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958	1	1.8	1.8	1.8
	1961	2	3.6	3.6	5.5
	1963	1	1.8	1.8	7.3
	1964	3	5.4	5.5	12.7
	1965	2	3.6	3.6	16.4
	1966	2	3.6	3.6	20.0
	1967	2	3.6	3.6	23.6
	1968	1	1.8	1.8	25.5
	1969	6	10.7	10.9	36.4
	1970	10	17.9	18.2	54.5
	1971	9	16.1	16.4	70.9
	1972	2	3.6	3.6	74.5
	1973	4	7.1	7.3	81.8
	1974	2	3.6	3.6	85.5
	1975	2	3.6	3.6	89.1
	1976	2	3.6	3.6	92.7
	1977	1	1.8	1.8	94.5
	1978	1	1.8	1.8	96.4
	1980	2	3.6	3.6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Ⅲ. 부산에 대한 인식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돼지국밥이 28.3%, 어묵 17.3%, 밀면 14.5%, 생선회 11.7%, 씨앗호떡 6.6%, 물떡 3.8%, 해물전골 3.6%, 파전 3.2% 순이었다. 돼지국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묵과 밀면 그리고 생선회가 10%를 넘는 추천을 받고 있다. 동래의 대표음식으로 인식되어 왔던 파전은 3.2%로 최상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씨앗호떡과 물떡이 새로운 부산의 음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5〉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어묵	9	6.4	12	6.4	13	3.5	5	0.9	1	0.1	17.3
해물전골	1	0.7	5	2.7		0.0		0.0	2	0.2	3.6
생선회	7	5.0	7	3.8	6	1.6	5	0.9	5	0.4	11.7
아구찜		0.0	1	0.5		0.0	3	0.5	1	0.1	1.2
돼지국밥	29	20.7	11	5.9	5	1.3	1	0.2	2	0.2	28.3
장어구이		0.0		0.0		0.0	1	0.2		0.0	0.2
밀면	6	4.3	9	4.8	12	3.2	11	2.0	2	0.2	14.5
칼국수		0.0		0.0		0.0	3	0.5		0.0	0.5
파전	1	0.7	2	1.1	2	0.5	2	0.4	6	0.5	3.2
씨앗호떡	2	1.4	3	1.6	5	1.3	4	0.7	17	1.5	6.6
족발		0.0		0.0		0.0	1	0.2		0.0	0.2
회국수	1	0.7		0.0		0.0	1	0.2	2	0.2	1.1
삼겹살		0.0	1	0.5	1	0.3		0.0		0.0	0.8
뼈다귀탕		0.0		0.0	1	0.3	1	0.2		0.0	0.5
낙지볶음		0.0		0.0	1	0.3	3	0.5	2	0.2	1.0
젓갈		0.0		0.0		0.0	1	0.2	1	0.1	0.3
대구탕		0.0		0.0		0.0		0.0	1	0.1	0.1
양곱창		0.0	1	0.5		0.0		0.0		0.0	0.5
비빔당면		0.0		0.0		0.0	2	0.4	2	0.2	0.5
물떡		0.0	1	0.5	5	1.3	8	1.4	5	0.4	3.8
순대		0.0	2	1.1	1	0.3	1	0.2	3	0.3	1.8
시락국		0.0		0.0	1	0.3		0.0	1	0.1	0.4
꼼장어		0.0		0.0	2	0.5	1	0.2	1	0.1	0.8
메기매운탕		0.0		0.0		0.0	1	0.2		0.0	0.2
기타		0.0		0.0		0.0		0.0	1	0.1	0.1
소계	56	40.0	55	29.5	55	14.7	55	9.8	55	4.9	98.9
시스템		0.0	1	0.5	1	0.3	1	0.2	1	0.1	1.1
전체	56	40.0	56	30.0	56	15.0	56	10.0	56	5.0	100.0

주 : 1순위 0.4, 2순위 0.3, 3순위 0.15, 4순위 0.1, 5순위 0.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타지역에서 온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산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광안리 25.1%, 해운대 13%, 대교[5] 6.1%, 서면 4.5%, 부산국제영화제 4.2%, 광안리 불꽃놀이 4.2%, 흰여울마을 3.2%, 남포동 3%, 센텀시티 2.9%, 달맞이길 2.6%, 신세계백화점 2.2%, 벡스코 2.1%, 자갈치시장 2%, 다대포 2% 순이었다. 광안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점하였고 이어 해운대가 2위를 차지하였다. 3위는 바다를 두르는 대교가 차지하고 있어 결국 부산의 가장 볼만한 것은 광안리와 대교 그리고 해운대를 잇는 벨트라고 하겠다. 이어 장소로서는 서면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장소는 아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안리불꽃놀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부산의 자랑거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산의 주요한 관광지로는 흰여울마을의 부상이 눈에 띈다. 감천문화마을을 제치고 흰여울마을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아 흰여울마을이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읽게 한다.

반면 과거 부산의 주요 관광지였던 태종대, 송도, 송정, 다대포 등지는 젊은이들이 주요하게 여기는 명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와 함께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부경대/경성대 앞도 많은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조사대상이 신라대 학생이어서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6〉 타지역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
광안리	24	17.2	11	5.9	7	1.9			2	0.2	25.1
대교	4	2.8	4	2.1	1	0.3	3	0.5	4	0.4	6.1
롯데야구		0.0	4	2.1	7	1.9	3	0.5	2	0.2	4.7
해운대	11	7.8	6	3.2	3	0.8	5	0.9	3	0.3	13.0
신항만	1	0.7		0.0		0.0		0.0	1	0.1	0.8
부산국제영화제	1	0.7	4	2.1	3	0.8	3	0.5		0.0	4.2
센텀시티	1	0.7	2	1.1	3	0.8	1	0.2		0.0	2.8
용두산공원		0.0		0.0	1	0.3		0.0	2	0.2	0.5
자갈치시장	1	0.7		0.0	3	0.8	2	0.4	1	0.1	2.0
벡스코	1	0.7		0.0	3	0.8	2	0.4	2	0.2	2.1
달맞이길	1	0.7	3	1.6		0.0	1	0.2	1	0.1	2.6
서면	2	1.4	2	1.1	3	0.8	4	0.7	5	0.4	4.5
을숙도		0.0		0.0	1	0.3		0.0	1	0.1	0.4
부산박물관	1	0.7		0.0		0.0		0.0		0.0	0.7
송정		0.0	2	1.1		0.0	1	0.2		0.0	1.3
부경대/경성대		0.0		0.0	1	0.3	1	0.2	1	0.1	0.5
국립국악원		0.0	1	0.5		0.0		0.0		0.0	0.5
다대포		0.0	3	1.6		0.0	2	0.4		0.0	2.0
부산대앞		0.0	1	0.5	1	0.3		0.0		0.0	0.8
동백섬	1	0.7		0.0		0.0		0.0	1	0.1	0.8
해운대마린시티		0.0	2	1.1		0.0	1	0.2	1	0.1	1.4

5) 부산에는 광안대교를 비롯하여 해안을 가로지르는 대교들이 여러 개 있다.

다대포		0.0		0.0	1	0.3		0.0		0.0	0.3
태종대		0.0		0.0	1	0.3		0.0		0.0	0.3
송상현광장		0.0		0.0	1	0.3		0.0		0.0	0.3
광안리불꽃놀이	3	2.2	1	0.5	4	1.1	1	0.2	3	0.3	4.2
황령산전망대	1	0.7	1	0.5		0.0	3	0.5	1	0.1	1.9
감천문화마을		0.0		0.0	4	1.1	2	0.4	3	0.3	1.7
흰여울마을		0.0	2	1.1	3	0.8	7	1.3	1	0.1	3.2
기장		0.0		0.0	1	0.3		0.0		0.0	0.3
영도대교		0.0		0.0		0.0	2	0.4		0.0	0.4
송도		0.0		0.0		0.0	2	0.4	4	0.4	0.7
부산시민공원		0.0	1	0.5		0.0	2	0.4	2	0.2	1.1
시립미술관		0.0		0.0		0.0		0.0	2	0.2	0.2
신세계백화점	1	0.7	2	1.1		0.0	1	0.2	2	0.2	2.2
남포동	1	0.7	1	0.5	2	0.5	4	0.7	6	0.5	3.0
용궁사	1	0.7		0.0		0.0		0.0	1	0.1	0.8
삼락공원		0.0	1	0.5		0.0		0.0		0.0	0.5
부산역광장		0.0		0.0	1	0.3		0.0		0.0	0.3
영화의전당		0.0		0.0		0.0	1	0.2		0.0	0.2
미포철도길		0.0		0.0		0.0		0.0	1	0.1	0.1
락페스티벌		0.0		0.0		0.0	1	0.2	1	0.1	0.3
동래읍성/복천고분		0.0	1	0.5		0.0		0.0		0.0	0.5
소계	56	40.0	55	29.5	55	14.7	55	9.8	54	4.8	98.8
결측		0.0	1	0.5	1	0.3	1	0.2	2	0.2	1.2
전체	56	40.0	56	30.0	56	15.0	56	10.0	56	5.0	100.0

주 : 1순위 0.4, 2순위 0.3, 3순위 0.15, 4순위 0.1, 5순위 0.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부산에 새로 생겼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놀이공원 11.6%, 도서관 10.1%, 공원 9%, 미술관 8.4%, 워터파크 6%, 수목원 5.8%, 박물관 5%, 동물원 4.7%, 오페라하우스 4.5%, 연극공간 4.3%, 콘서트홀(아트홀) 4.1%, 컨벤션센터 3.2%순이었다. 추천된 것을 보면 하나에 집중되기 보다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공원과 도서관이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공원, 미술관 등이었다.

〈표 17〉 부산에 새로 생겼으면 좋은 것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도서관	10	7.2	4	2.1	2	0.5	1	0.2	1	0.1	10.1
수목원	3	2.2	5	2.7	2	0.5	1	0.2	3	0.3	5.8
박물관	4	2.8	1	0.5	5	1.3	1	0.2	1	0.1	5.0
미술관	8	5.7	2	1.1	2	0.5	6	1.1		0.0	8.4
공원	3	2.2	7	3.8	5	1.3	7	1.3	6	0.5	9.0
광장		0.0	1	0.5	3	0.8	3	0.5	4	0.4	2.2
연극공간	3	2.2	1	0.5		0.0	8	1.4	2	0.2	4.3
인디밴드공연장		0.0		0.0	2	0.5		0.0	1	0.1	0.6
체육관	1	0.7	1	0.5	2	0.5	2	0.4	1	0.1	2.3
운동장		0.0	1	0.5		0.0	1	0.2		0.0	0.7
오페라하우스	1	0.7	5	2.7	4	1.1		0.0	1	0.1	4.5
돔야구장		0.0	2	1.1		0.0		0.0	1	0.1	1.2
실내스케이트장	1	0.7	1	0.5	2	0.5	1	0.2	1	0.1	2.1
번지점프	1	0.7	3	1.6	1	0.3		0.0	2	0.2	2.8
행글라이더	1	0.7	1	0.5		0.0	1	0.2	2	0.2	1.6
실내암벽등반		0.0		0.0	2	0.5		0.0	3	0.3	0.8
대형서점		0.0		0.0	1	0.3	2	0.4	1	0.1	0.7
컨벤션센터	2	1.4	2	1.1	2	0.5		0.0	2	0.2	3.2
아쿠아리움		0.0	2	1.1	3	0.8		0.0		0.0	1.9
익스트림경기장		0.0		0.0	2	0.5	2	0.4	2	0.2	1.1
워터파크	4	2.8	3	1.6	3	0.8	2	0.4	4	0.4	6.0
놀이공원	8	5.7	6	3.2	4	1.1	6	1.1	6	0.5	11.6
실내낚시장		0.0		0.0		0.0		0.0	1	0.1	0.1
동물원	3	2.2	1	0.5	4	1.1	4	0.7	3	0.3	4.7
영화관	1	0.7	3	1.6	1	0.3		0.0	2	0.2	2.8
축구장		0.0		0.0	1	0.3	2	0.4		0.0	0.6
콘서트홀/아트홀	2	1.4	3	1.6		0.0	4	0.7	4	0.4	4.1
기타		0.0		0.0	2	0.5	1	0.2	1	0.1	0.8
소계	56	40.0	55	29.5	55	14.7	55	9.8	55	4.9	98.9
결측		0.0	1	0.5	1	0.3	1	0.2	1	0.1	1.1
전체	56	40.0	56	30.0	56	15.0	56	10.0	56	5.0	100.0

주 : 1순위 0.4, 2순위 0.3, 3순위 0.15, 4순위 0.1, 5순위 0.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부산사람들의 성격 가운데 좋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의리있다' 21.6%, '솔직하다' 16.8%, '친절하다' 10.4%, '정이많다' 10%, '활기차다' 9%, '화끈하다' 7.8%, '인심좋다' 7.2% 순이었다. 부산사람들은 '의리있고 솔직하고 친절하고 정이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8〉 부산 사람들의 좋은 성격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친절하다	8	7.2	4	2.1	3	1.1	10.4
의리있다	16	14.3	11	5.9	4	1.4	21.6
솔직하다	12	10.7	8	4.3	5	1.8	16.8
질서잘지킴	1	0.9		0.0	3	1.1	2.0
애향심높음	3	2.7	2	1.1	1	0.4	4.1
봉사많이함		0.0	2	1.1	1	0.4	1.4
남배려잘함		0.0		0.0	5	1.8	1.8
부지런함	1	0.9		0.0	1	0.4	1.3
활기참	2	1.8	10	5.4	5	1.8	9.0
인심좋음	3	2.7	5	2.7	5	1.8	7.2
순박함		0.0	1	0.5		0.0	0.5
뒤끝없음		0.0	1	0.5	2	0.7	1.3
남잘도움		0.0		0.0	3	1.1	1.1
화끈함	4	3.6	6	3.2	3	1.1	7.8
정이많다	5	4.5	3	1.6	11	3.9	10.0
강인하다		0.0	2	1.1	4	1.4	2.5
기타		0.0	1	0.5		0.0	0.5
소계	55	49.1	56	30.0	56	20.0	99.1
결측	1	0.9		0.0		0.0	0.9
계	56	50.0	56	30.0	56	20.0	100.0

주 : 1순위 0.5, 2순위 0.3, 3순위 0.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반면 부산사람들의 나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격급하다' 36.1%, '무질서하다' 16.1%, '시끄럽다' 13%, '간섭잘한다' 8.6%, '시비잘건다' 4.7%의 순이었다. 장점에 비해 단점에 대한 응답이 몇 개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격이 급하다'는 응답이 36.1%로 높은 비중을 점했다. 이후 '무질서하고 시끄럽다'는 응답이 10%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19〉 부산 사람들의 나쁜 성격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무질서	15	13.4	3	1.6	3	1.1	16.1
성격급함	31	27.7	15	8.0	1	0.4	36.1
시끄러움	3	2.7	12	6.4	11	3.9	13.0
이기적임		0.0	3	1.6	3	1.1	2.7
간섭잘함	2	1.8	6	3.2	10	3.6	8.6
변화무감각	2	1.8		0.0	2	0.7	2.5
배려없음		0.0	5	2.7	3	1.1	3.8
예의없음		0.0	3	1.6	1	0.4	2.0
배타적임		0.0	1	0.5		0.0	0.5
주인의식약함	1	0.9		0.0	2	0.7	1.6
이웃무관심		0.0	1	0.5	4	1.4	2.0
감성적임		0.0	1	0.5	2	0.7	1.3
시비잘건다	1	0.9	3	1.6	6	2.1	4.7
사투리를쓴다		0.0		0.0	2	0.7	0.7
가부장적이다	1	0.9	2	1.1	4	1.4	3.4
소계	56	50.0	55	29.5	54	19.3	98.7
결측		0.0	1	0.5	2	0.7	1.3
전체	56	50.0	56	30.0	56	20.0	100.0

주 : 1순위 0.5, 2순위 0.3, 3순위 0.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가 하는 설문에서는 부산 43.8%, 경남 8.4%, 울산 2.9%로 부울경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5.1%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20%, 해외가 13%였다. 졸업 후 대체로 부산과 인근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해외와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부울경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타지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20〉 졸업후 취업 희망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부산	43	38.4	8	4.3	3	1.1	43.8
경남		0.0	11	5.9	7	2.5	8.4
울산		0.0	2	1.1	5	1.8	2.9
대구경북	1	0.9	2	1.1	2	0.7	2.7
호남제주	1	0.9	6	3.2	5	1.8	5.9
충청대전		0.0	2	1.1		0.0	1.1
강원		0.0	1	0.5		0.0	0.5
수도권	5	4.5	19	10.2	15	5.4	20.0
해외	5	4.5	4	2.1	18	6.4	13.0
소계	55	49.1	55	29.5	55	19.6	98.2
결측	1	0.9	1	0.5	1	0.4	1.8
전체	56	50.0	56	30.0	56	20.0	100.0

주 : 1순위 0.5, 2순위 0.3, 3순위 0.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함

'대형쇼핑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에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설문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였고, 26.8%는 '잘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대형쇼핑몰 입점이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	잘모르겠다	아니다	기타	전체
빈도	30	15	8	3	56
퍼센트	53.6	26.8	14.3	5.4	100

좋아하는 음료에 대한 설문에서 커피가 32.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콜라가 19.6%였다. 커피와 콜라를 합하면 51.7%로 절반을 약간 넘고 있다. 물을 제외한 음료에서 커피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음이 주목된다. 이어 사이다와 스포츠음료가 각 7.1%, 과일주스와 티가 각 5.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2〉 좋아하는 음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커피	18	32.1	32.7	32.7
	콜라	11	19.6	20.0	52.7
	사이다	4	7.1	7.3	60.0
	스포츠음료	4	7.1	7.3	67.3
	녹차	2	3.6	3.6	70.9
	전통차	1	1.8	1.8	72.7
	과일주스	3	5.4	5.5	78.2
	우유	1	1.8	1.8	80.0
	스무디	1	1.8	1.8	81.8
	티(홍차/아이스티/허브티/버블티)	3	5.4	5.5	87.3
	식초음료	1	1.8	1.8	89.1
	마테차	1	1.8	1.8	90.9
	옥수수수염차	2	3.6	3.6	94.5
	기타	3	5.4	5.5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44.6%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26.8%로 그 뒤를 이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반반 이용한다는 응답은 10.7%였다. 한편 자가용과 택시의 비율이 각 5.4%였고 '걸어서 다닌다'는 응답은 1.8%였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와 주거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요한 교통이용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높은 수송 분담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버스	25	44.6	46.3	46.3
	지하철	15	26.8	27.8	74.1
	자가용	3	5.4	5.6	79.6
	택시	3	5.4	5.6	85.2
	걸어서	1	1.8	1.9	87.0
	버스지하철반반	6	10.7	11.1	98.1
	기타	1	1.8	1.9	100.0
	소계	54	96.4	100.0	
결측	시스템	2	3.6		
전체		56	100.0		

부산의 인구가 얼마일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다양하였다. 3만명이라는 값부터 900만명까지 분포가 매우 다양했는데, 우선 부산인구에 대한 학생들의 감각이 실제와 많이 떨어져 있다는데 놀라게 된다. 응답을 하지 않은 결측치가 10명이라는 것도 학생들이 부산의 인구에 대해 평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응답한 값의 평균 182만명으로 부산의 실제 인구 340만명보다 크게 작았다. 학생들의 의식 속에 부산은 이제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부산의 실제인구 340만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명 밖에 없다는 것에서 다시 확인이 된다.

〈표 24〉 부산의 인구에 대한 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	1	1.8	2.2	2.2
	4	1	1.8	2.2	4.3
	5	1	1.8	2.2	6.5
	7	1	1.8	2.2	8.7
	10	4	7.1	8.7	17.4
	12	2	3.6	4.3	21.7
	13	1	1.8	2.2	23.9
	20	3	5.4	6.5	30.4
	30	1	1.8	2.2	32.6
	50	5	8.9	10.9	43.5
	90	1	1.8	2.2	45.7
	100	4	7.1	8.7	54.3
	110	1	1.8	2.2	56.5
	150	1	1.8	2.2	58.7
	200	1	1.8	2.2	60.9
	300	8	14.3	17.4	78.3
	330	2	3.6	4.3	82.6
	338	2	3.6	4.3	87.0
	350	1	1.8	2.2	89.1
	400	1	1.8	2.2	91.3
	500	2	3.6	4.3	95.7
	600	1	1.8	2.2	97.8
	900	1	1.8	2.2	100.0
	소계	46	82.1	100.0	
결측	시스템	10	17.9		
전체		56	100.0		

1주일에 술마시는 횟수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35.7%로 3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회가 33.9%로 3명 가운데 1명은 1주일에 1회 마시고 있었다. 이어 2회가 21.4%, 3회 5.4%, 5회 3.6%였다. 1주일에 5회 이상 술을 마시는 학생은 응답자 가운데 2명에 불과하였다.

〈표 25〉 주당 음주 횟수

	0	1	2	3	5	전체
빈도	20	19	12	3	2	56
퍼센트	35.7	33.9	21.4	5.4	3.6	100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58.9%가 참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참석'은 영화관람을 포함하여 국제영화제기간 중에 하는 어떤 행사이든 참여는 모두 포함한 것인데도 58.9%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1회 참석이 21.4%, 2회 참석이 10.7%, 3회 5.4% 그리고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명이었다.

〈표 26〉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횟수

	0	1	2	3	4	6	전체
빈도	33	12	6	3	1	1	56
퍼센트	58.9	21.4	10.7	5.4	1.8	1.8	100

‘2021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5.4%가 있다고 응답하여 참여의사가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제대로 홍보를 한다면 대학생들의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표 27〉 2021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희망 여부

	있다	생각해보지 않음	없다	전체
빈도	31	15	10	56
퍼센트	55.4	26.8	17.9	100

휴대전화 사용시간에 대한 응답에는 약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단위를 분이 아닌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 둘째는 문자 그대로 휴대하고 다니는 시간을 전부 이용하는 시간에 포함시킬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답을 보기로 한다. 하루 휴대전화 사용시간에 대한 설문에는 0분부터 600분까지의 응답이 있었다. 전혀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명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간다. 한편 가장 많은 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은 600분으로 하루 10시간을 휴대전화를 쓴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편차들을 고려하면서 평균을 구한 결과 188.5분으로 학생들은 평균 하루 3시간 정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28〉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0	2	3.6	3.6	3.6
	4	2	3.6	3.6	7.3
	5	2	3.6	3.6	10.9
	20	1	1.8	1.8	12.7
	60	2	3.6	3.6	16.4
	80	1	1.8	1.8	18.2
	100	1	1.8	1.8	20.0
	120	8	14.3	14.5	34.5
	130	1	1.8	1.8	36.4
	150	2	3.6	3.6	40.0
	180	13	23.2	23.6	63.6
	200	3	5.4	5.5	69.1
	240	7	12.5	12.7	81.8
	300	3	5.4	5.5	87.3
	360	4	7.1	7.3	94.5
	480	1	1.8	1.8	96.4
	600	2	3.6	3.6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해외여행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10.7%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여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회와 2회가 16.1%, 3회가 26.8%, 4회가 16.1%의 비중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해외여행 횟수는 13회였다.

〈표 29〉 해외여행 횟수

	0	1	2	3	4	5	6	8	13	전체
빈도	6	9	9	15	9	4	2	1	1	56
퍼센트	10.7	16.1	16.1	26.8	16.1	7.1	3.6	1.8	1.8	100

'부산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몇 번 보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32.1%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프로야구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야구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야구팬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야구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5회 이상 야구장에 갔다는 응답자는 9명으로 16.1%에 달했다.

〈표 30〉 부산프로야구 경기 관람횟수(회)

	0	1	2	3	4	5	7	10	전체
빈도	18	16	6	2	5	2	2	5	56
퍼센트	32.1	28.6	10.7	3.6	8.9	3.6	3.6	8.9	100

친한 친구수에 대한 설문에는 1명에서부터 30명까지 다양하였다. 5명 이하라는 응답이 55.4%로 친한 친구의 수가 5명을 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었다.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7명이었고 평균은 6.9명이었다. 설문응답자들의 평균 친구수는 약 7명 정도였다.

〈표 31〉 친한 친구수(명)

	1명	3	4	5	6	7명	전체
빈도	3	8	4	16	3	2	56
퍼센트	5.4	14.3	7.1	28.6	5.4	3.6	100
	8명	9	10	15	20	30명	전체
빈도	2	1	14	1	1	1	56
퍼센트	3.6	1.8	25	1.8	1.8	1.8	100

하루 수면시간은 7시간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시간으로 28.6%였

다. 반면 5시간이라는 응답은 7.1%, 1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5.4%였다.

〈표 32〉 하루 수면시간(시간)

	5	6	7	8	9	10	12	전체
빈도	4	10	18	16	5	2	1	56
퍼센트	7.1	17.9	32.1	28.6	8.9	3.6	1.8	100

한편 통학시간에 대한 설문에는 1분부터 240분까지 다양하였다. 10분 이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이었는데, 이들은 기숙사와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학생은 240분으로 4시간에 달했다. 평균은 93.6분으로 약 한 시간 반 정도였다.

〈표 33〉 통학 소요시간(분)

	1	2	3	10	20	30	40	50	60	70	전체
빈도	1	1	2	3	3	2	2	3	9	1	56
퍼센트	1.8	1.8	3.6	5.4	5.4	3.6	3.6	5.4	16.1	1.8	100
	80	90	100	110	120	130	150	160	180	240	전체
빈도	1	3	1	1	7	1	1	1	12	1	56
퍼센트	1.8	5.4	1.8	1.8	12.5	1.8	1.8	1.8	21.4	1.8	100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빈도로 보면 3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만원 11명이었다. 40만원도 10명의 응답자를 보였다. 빈도로 보면 30-50만원 사이의 용돈을 쓰는 학생들이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은 47.8만원이었다.

〈표 34〉 한 달 용돈(만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0	1	1.8	1.8	1.8
	20	1	1.8	1.8	3.6
	30	19	33.9	34.5	38.2
	40	10	17.9	18.2	56.4
	50	11	19.6	20.0	76.4
	60	5	8.9	9.1	85.5
	70	1	1.8	1.8	87.3
	80	2	3.6	3.6	90.9
	90	1	1.8	1.8	92.7
	100	3	5.4	5.5	98.2
	160	1	1.8	1.8	100.0
	소계	55	98.2	100.0	
결측	시스템	1	1.8		
전체		56	100.0		

Ⅳ. 요약 및 시사

설문에 응한 학생수는 원래 108명이었으나 그 가운데 부산에서 출생한 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6명 가운데 남자가 27명, 여자가 29명이었다. 응답자의 출생연도는 2000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999년, 1998년 순이었다.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6%가 무교라고 응답하여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불교가 19.6%, 개신교와 가톨릭이 각각 5.4%였다.

응답자 아버지의 출생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 46.4%, 경남 25%, 울산 3.6%로 전체 응답자의 75%가 부울경 출신이었다. 수도권 출생자는 1명도 없었다. 어머니의 출생지도 대체로 아버지와 유사하였다. 부산이 48.2%, 경남 26.8%, 울산 1.8%로 부울경이 76.8%를 점하고 있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돼지국밥이 28.3%, 어묵 17.3%, 밀면 14.5%, 생선회 11.7%, 씨앗호떡 6.6%, 물떡 3.8%, 해물전골 3.6%, 파전 3.2% 순이었다. 돼지국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묵과 밀면 그리고 생선회가 10%를 넘는 추천을 받고 있다. 동래의 대표음식으로 인식되어 왔던 파전은 3.2%로 최상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씨앗호떡과 물떡이 새로운 부산의 음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지역에서 온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산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광안리 25.1%, 해운대 13%, 대교 6.1%, 서면 4.5%, 부산국제영화제 4.2%, 광안리 불꽃놀이 4.2%, 흰여울마을 3.2%, 남포동 3%, 센텀시티 2.9%, 달맞이길 2.6%, 신세계백화점 2.2%, 벡스코 2.1%, 자갈치시장 2%, 다대포 2% 순이었다.

부산에 새로 생겼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놀이공원 11.6%, 도서관 10.1%, 공원 9%, 미술관 8.4%, 워터파크 6%, 수목원 5.8%, 박물관 5%, 동물원 4.7%, 오페라하우스 4.5%, 연극공간 4.3%, 콘서트홀(아트홀) 4.1%, 컨벤션센터 3.2%순이었다. 추천된 것을 보면 하나에 집중되기 보다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공원과 도서관이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공원, 미술관 등이었다.

부산사람들의 성격 가운데 좋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의리있다' 21.6%, '솔직하다' 16.8%, '친절하다' 10.4%, '정이많다' 10%, '활기차다' 9%, '화끈하다' 7.8%, '인심좋다' 7.2% 순이었다. 부산사람들의 나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격급하다' 36.1%, '무질서하다' 16.1%, '시끄럽다' 13%, '간섭잘한다' 8.6%, '시비잘건다' 4.7%의 순이었다.

졸업후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가 하는 설문에서는 부산 43.8%, 경남 8.4%, 울산 2.9%로 부울경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5.1%였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20%, 해외가 13%였다. 대형쇼핑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에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설문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였고 26.8%는 '잘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좋아하는 음료에 대한 설문에서 커피가 32.1%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콜라가 19.6%였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44.6%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26.8%로 그 뒤를 이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반반 이용한다는 응답은 10.7%였다.

부산의 인구가 얼마일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다양하였다. 3만명이라는 값부터 900만명까지 분포가 매우 다양했는데, 우선 부산인구에 대한 학생들의 감각이 실제와 많이 떨어져 있었다. 1주일에 술마시는 횟수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35.7%로 3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회가 33.9%로 역시 3명 가운데 1명은 1주일에 1회 마시고 있었다. 이어 2회가 21.4%, 3회 5.4%, 5회 3.6%였다. 1주일에 5회 이상 술을 마시는 학생은 응답자 가운데 2명에 불과하였다. 해외여행 경험 횟수에 대해서는 10.7%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여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회와 2회가 16.1%, 3회가 26.8%, 4회가 16.1%의 비중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해외여행 횟수는 13회였다.

친한 친구수의 평균은 7명 정도였다. 하루 수면시간은 7시간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시간으로 28.6%였다. 반면 5시간이라는 응답은 7.1%, 1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5.4%였다.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빈도로 보면 3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만원 11명이었다. 40만원도 10명의 응답자를 보였다. 빈도로 보면 30-50만원 사이의 용돈을 쓰는 학생들이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은 47.8만원이었다.

참고문헌

김대래·김호범. (2020.12). 2019년도 2학기 부산지역 대학생의 부산인식-부산대학교 경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8권 2호. 48-68.

김대래·강은주. (2020.6). 2018년도 부산중앙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산인식에 관한 조사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8권 1호. 44-62.

김대래·유영명·정용석. (2019.12). 2019년 2학기 '부산의 하루' 수강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7권 2호. 63-88.

김대래·신군재·장희정·유영명·정쾌영. (2019.12). 2019년도 2학기 신라대학교 재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 분석-인문사회계 학생을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7권 2호. 89-117.

김대래·강은주. (2019.12). 부산시민들의 생활과 부산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부산중앙도서관 2017년 부산학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7권 2호. 118-128.

김대래·김종한. (2019.7). 2018년 2학기 부산지역 대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 분석-경성대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7권 1호. 80-105.

김대래·김유경·신군재·장희정·양승훈·유영명·정쾌영. (2019.7). 2019년도 1학기 신라대학교 재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7권 1호. 52-79.

김대래·박명선·김형구. (2018.12). 신라대학교 2018년 2학기 '부산의 하루'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2호. 67-87.

김대래·김종한·김호범·장희정·유영명·박희정. (2018.12). 2018년 하반기 부산지역 대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경성대, 부산대, 신라대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2호. 88-110.

김대래·박명선·태경호. (2018.6). 2017년 2학기 '부산의 하루' 수강생 설문조사의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1호. 31-57.

김대래·김상권·유영명. (2018.6). 2017년도 2학기 신라대학교 재학생의 부산인식 설문조사의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1호. 58-83.

김대래·장희정·유영명·박희정. (2018.6A). 2017년 하반기 신라대학교 '부산의 하루' 수강생 및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Ⅰ),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1호. 84-108.

김대래·장희정·유영명·박희정. (2018.6B). 2017년 하반기 신라대학교 '부산의 하루' 수강생 및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Ⅱ),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6권 1호. 109-131.

김대래·유명길. (2017.8A). 2014년도 신라대학교 '부산의 하루'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5권 1호. 73-107.

김대래·유명길. (2017.8B). 부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2015년도 신라대학교 '부산의 하루'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5권 1호. 109-141.

김대래·유명길. (2017.8C). 부산출신 대학생들의 부산인식(Ⅰ) : 2017년도 설문조사의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5권 1호. 143-172.

김대래·유명길. (2017.8D). 부산출신 대학생들의 부산인식(Ⅱ) : 2017년도 설문조사의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 제15권 1호. 173-186.

김대래. (2017.12A). 부산의 종교별 인구 비중 추이.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15권 2호. 75-97.

김대래. (2017.12B). 부산출생 대학생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모의 고향-2014-2017년 조사의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15권 2호, 98-114.

김대래·유명길·장희정·정쾌영. (2016.12). 부산사람들의 기질과 생활인식 : 2016년도 '부산의 하루'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부산연구』제14권. 23-43.

〈Abstract〉

A Study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the Busan, in the spring semester 2021 -In the case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illa University-

Kim, Dae-rae[1)]·Yang, Seong-hun·Jang[2)], Hee-jung[3)]

This paper is the result of a survey for Silla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ttending at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The survey like this is conducting every semester.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were surveyed. Originally, 108 respondents were surveyed, but we analyzed 56 students, as 56 of them were born in Busan. It examined students' religion, their father and mother's hometown and representative food and nice places in Busa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good and bad characteristics of Busan people. Also we asked what would be good to have something new in Busan. It also surveyed the number of times students drink alcohol per week. And we asked what are their favorite drinks and analyzed how much pocket money they spend per month. Through this analysis, we were able to understand what college students thought about Busan. And if research like this continues and accumulates, it is expected to be a good data to understand Busan in the future.

Keywords : Busan, characteristics of Busan citizens, representative food of Busan, image of Busan, identity of Busan

1) Honorary Professor, Dept., of Economics, Silla Univ
2)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illa Univ
3)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illa Univ

<부록>

2021학년도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부산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Ⅰ. 다음은 기본 질문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1.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①남 ②여

2. 몇 학년인가요?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3. 전공은 무엇인가요?
①인문·사회계(상경계) ②이공계(자연·공학) ③예술·체육계 ④의약·보건계열 ⑤사범계
⑥기타( )

4.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 )년도

5. 현재 어느 구에 살고 계시나요?
①중구 ②동구 ③영도구 ④서구 ⑤남구 ⑥수영구 ⑦해운대구 ⑧동래구 ⑨연제구 ⑩금정구
⑪북구 ⑫사상구 ⑬사하구 ⑭부산진구 ⑮강서구 ⑯기장군 ⑰김해 ⑱양산 ⑲창원 ⑳울산
㉑기타( )

6. 어디에서 출생하였나요? (광역시도)
①부산 ②경남 ③울산 ④경북 ⑤대구 ⑥호남.제주 ⑦충청.대전 ⑧강원 ⑨서울.경기.인천
⑩기타( )

7.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요?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이상( )

8. 종교는 무엇인가요?
①불교 ②가톨릭(천주교) ③개신교(기독교) ④원불교 ⑤이슬람교 ⑥무교
⑦기타( )

9. 아버지의 고향(출생지)은 어디이신가요? 아래 광역시도에서 고르시오.(광역시도)
①부산 ②경남 ③울산 ④경북 ⑤대구 ⑥호남.제주 ⑦충청.대전 ⑧강원 ⑨서울.경기.인천
⑩기타( )

10. 아버지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세 또는 출생연도( )년도 출생

11. 어머니의 고향(출생지)은 어디이신가요? 아래 광역시도에서 고르시오. (광역시도)
①부산 ②경남 ③울산 ④경북 ⑤대구 ⑥호남.제주 ⑦충청.대전 ⑧강원 ⑨서울.경기.인천
⑩기타( )

12. 어머니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세 또는 출생연도( )년도 출생

Ⅱ. 다음은 부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13.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5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①어묵 ②해물(수중)전골 ③생선회 ④아구찜 ⑤돼지국밥 ⑥장어구이 ⑦복국 ⑧밀면 ⑨칼국수 ⑩(동래)파전 ⑪고등어구이 ⑫씨앗호떡 ⑬삼겹살 ⑭돼지갈비 ⑮족발 ⑯추어탕 ⑰회국수 ⑱양곱창 ⑲문어숙회 ⑳미역국 ㉑대구탕 ㉒뼈다귀탕 ㉓아구탕 ㉔젓갈 ㉕낙지볶음 ㉖비빔당면 ㉗물떡 ㉘순대 ㉙시락국 ㉚꼼장어 ㉛메기매운탕 ㉜기타(　　)

14. 타지역에서 온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5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①광안리해변 ②해안순환대교(광안대교/북항대교/남항대교 등) ③롯데야구 ④해운대 ⑤신항만(가덕) ⑥부산국제영화제 ⑦센텀시티 ⑧용두산공원 ⑨자갈치시장 ⑩벡스코 ⑪을숙도 ⑫달맞이길 ⑬서면 ⑭부경대/경성대주변 ⑮부산대앞 ⑯범어사 ⑰다대포 ⑱송정 ⑲금정산 ⑳동백섬(누리마루) ㉑부산박물관 ㉒부산문화회관 ㉓국립국악원 ㉔태종대 ㉕송상현광장 ㉖마린시티 ㉗광안리불꽃놀이 ㉘황령산전망대 ㉙감천문화마을 ㉚흰여울마을(영도) ㉛영도대교 ㉜송도(케이블카) ㉝부산시민공원 ㉞시립미술관 ㉟동구이바구길 ㊱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 ㊲기장바닷가 ㊳초량차이나타운 ㊴백양산 ㊵승학산 ㊶유엔평화공원 ㊷낙동강 ㊸남포동/광복동 ㊹용궁사(기장) ㊺삼락공원 ㊻천마산 ㊼연산동 ㊽미포철도길 ㊾영화의 전당 ㊿락페스티벌 51.동래읍성(복천동고분) 52. 동래전철역부근 53. 부산역광장 54.광복동 롯데백화점 55.동부산관광단지 56.기타(　　)

15. 부산에 더 또는 새로 생겼으면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5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①도서관 ②수목원 ③박물관 ④미술관 ⑤공원 ⑥광장 ⑦연극공간 ⑧인디밴드공연장 ⑨체육관 ⑩운동장 ⑪오페라하우스 ⑫돔야구장 ⑬실내스케이트장 ⑭번지점프 ⑮행글라이더 ⑯실내암벽등반 ⑰컨벤션센터 ⑱아쿠아리움(수족관) ⑲대형서점 ⑳익스트림경기장 ㉑워터파크 ㉒놀이공원 ㉓실내낚시장 ㉔동물원 ㉕영화관 ㉖축구장 ㉗콘서트홀(아트홀) ㉘기타(　　)

16. 부산시민들의 성격에서 좋은 점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3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친절하다 ②의리가 있다 ③솔직하다 ④질서를 잘지킨다 ⑤남을 잘배려한다 ⑥부지런하다 ⑦애향심이 높다 ⑧봉사활동을 많이한다 ⑨활기차다 ⑩인심이 좋다 ⑪순박하다
⑫남을 잘도와준다 ⑬뒤끝이 없다 ⑭화끈하다 ⑮정이 많다 ⑯강인하다
⑰기타(　　)

17. 부산시민들의 성격에서 나쁜 점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3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무질서하다 ②성격이 급하다 ③시끄럽다 ④이기적이다 ⑤남에게 간섭을 많이 한다 ⑥변화에 무감각하다 ⑦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⑧예의가 없다 ⑨주인의식이 약하다 ⑩배타적이다 ⑪이웃에 무관심하다 ⑫지나치게 감성적이다 ⑬잘난체한다 ⑭시비를 잘 건다 ⑮사투리를 쓴다 ⑯가부장적이다 ⑰기타(　　)

Ⅲ. 다음은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르게 응답해 주세요!

18. 대학 졸업후 다음 중 어느 곳에 취업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3개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부산 ②경남 ③울산 ④대구·경북 ⑤호남.제주 ⑥충청.대전 ⑦강원 ⑧서울.경기.인천 ⑨해외
⑩기타(　　)

19.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큰 쇼핑몰이 들어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그렇다 ②잘 모르겠다 ③아니다 ④기타(　　)

21. 물을 제외하고 즐겨 마시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1개만 골라주세요.(　　)
①커피 ②콜라 ③사이다 ④스포츠음료 ⑤녹차 ⑥전통차(모과차/대추차 등) ⑦과일주스 ⑧야채즙 ⑨우유 ⑩밀크세이크 ⑪스무디 ⑫두유 ⑬Tea(홍차/아이스티/허브티/버블티 등) ⑭식초음료(홍초 등) ⑮마테차 ⑯옥수수 수염차 ⑰식혜 ⑱요구르트 ⑲기타(　　)

22.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입니까?(　　)
①버스 ②지하철 ③자가용 ④택시 ⑤오토바이 ⑥자전거 ⑦걸어서 ⑧버스 지하철 반반
⑨기타(　　)

23. 부산인구가 대략 몇 명일까요?(　　)만명
* 검색하지 마세요...! 시험 아닙니다.!

24. 1주일에 몇 회 술을 마시는가요? (　　)회

25.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관람을 비롯하여 몇 번 참여하였나요?
(　　)회

26. 가을의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에 가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생각해 보지 않았다 ③없다 ④기타(　　)

27.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은 얼마인가요?(　　)분

28. 해외여행은 몇 번 하였나요?(　　)회

29. 부산에서 열린 야구경기에 이제까지 몇 번 가보았나요?(　　)회

30. 친한 친구는 몇 명인가요?(　　)명

31. 하루 잠을 몇 시간 잡니까?(　　)시간

32. 하루 통학(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분

33. 한달 용돈은 얼마나 쓰는가요? (　　)만원

** 즐겁고 유익한 한 한학기가 되길 바랍니다...!!